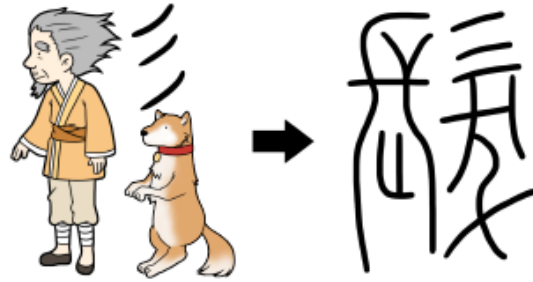


형성문자①



髮

터럭 발

髮자는 '터럭'이나 '머리털', '기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髟(늘어질 표)자와 𠂔(달릴 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개가 달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髮자는 길게 드리워진 머리털을 뜻하기 위해 머리털이 드리워진 모습의 髟자를 응용한 글자이다. 그래서 '머리털'이나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난 긴 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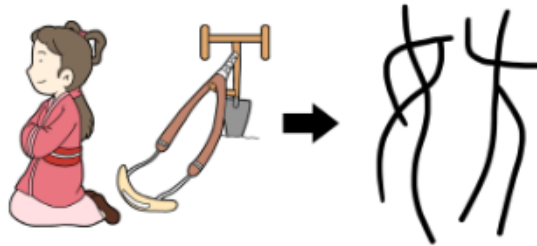
髮

소전

髮

해서

회의문자①



妨

방해할
방

妨자는 '방해하다'나 '순조롭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妨자는 女(여자 여)자와 方(모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方자는 독을 쌓거나 밭을 가는 농기구를 그린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女자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妨자도 그러한 예 중 하나로 여자(女)가 가래(方)로 독을 쌓듯이 방해한다는 뜻이다.

妨

소전

妨

해서

회의문자①



犯

범할 범:

犯자는 '범하다'나 '(법을)어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犯자는 犬(개 견)자와 亠(병부 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亠자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犯자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개에게 공격당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때는 犬자가 '짐승 같은'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犯자에 '공격하다'와 '(법을)어기다'라는 뜻이 있으니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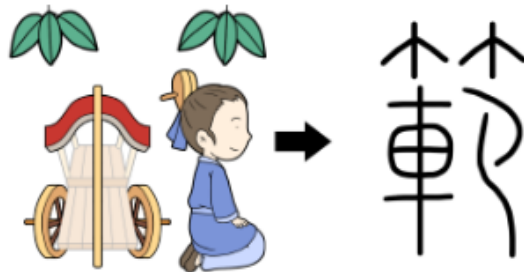
犯

소전

犯

해서

회의문자①



範

범 범:

範자는 '법도'나 '규범'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範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車(수레 차)자, 亠(병부 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고대에는 範자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지냈던 제사를 뜻했었다. 그래서 範자에 쓰인 車자는 먼 길을 떠날 때 타던 수레나 마차를 뜻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亠자는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다. 範자에 쓰인 竹자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으나 수레의 재질을 뜻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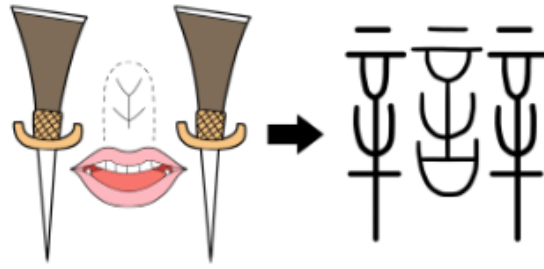
範

소전

範

해서

회의문자①



辯

말씀 변:

辯자는 '말을 잘하다'나 '(말에)조리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辯자는 辯(따질 변)자와 言(말씀 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辯자는 죄인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따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것을 뜻하는 辯자에 言자를 더한 辯자는 서로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변론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辯자는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대변해준다는 의미인 것이다. 분쟁당사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말솜씨가 뛰어나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辯자는 '말을 잘하다'나 '조리가 있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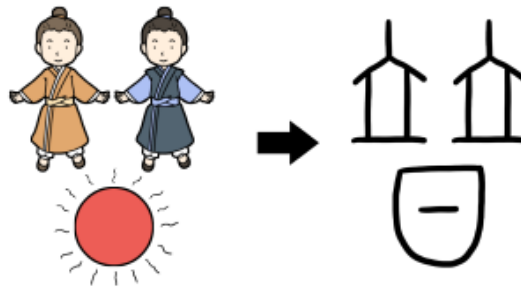
辯

소전

辯

해서

회의문자①



普

넓을 보:

普자는 '널리'나 '두루 미치다', '광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普자는 日(해 일)자와 並(아우를 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並(並)자는 두 사람을 나란히 그린 것으로 '아우르다'나 '모두'라는 뜻이 있다. 普자는 이렇게 '모두'라는 뜻을 가진 並자에 日자를 결합한 것으로 햇빛을 모두에게 골고루 비준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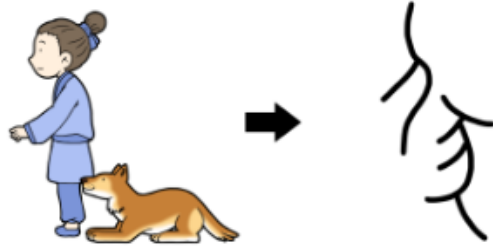
普

소전

普

해서

회의문자①



伏

엎드릴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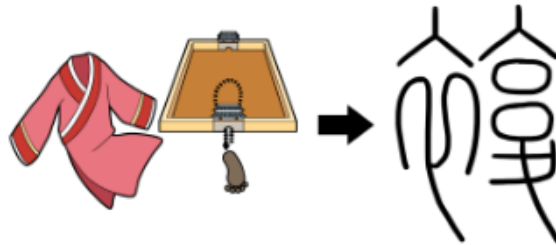
伏자는 '엎드리다'나 '굴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伏자는 人(사람 인)자와 犬(개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이렇게 '개'를 그린 犬자에 人자가 결합한 伏자는 개가 사람 옆에 바짝 엎드려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삼복더위라 하는 초복(初伏), 중복(中伏), 말복(末伏)에는 몸보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더운 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몸보신을 하는 것은 좋지만 伏자에 犬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보신탕을 먹는 날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날은 엎어질 듯이 매우 더운 날이라는 뜻의 伏날이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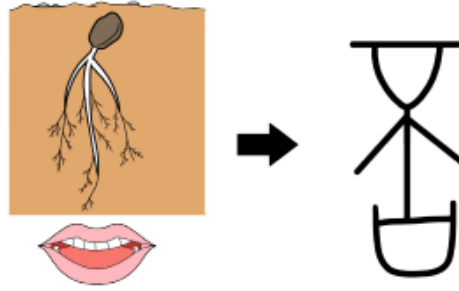
겹칠
복

複자는 '겹치다'나 '거듭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複자는 衣(옷 의)자와 復(돌아갈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復자는 성(城)을 나왔다가 되돌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돌아가다'나 '중복되다'라는 뜻이 있다. 複자는 이렇게 '중복되다'라는 뜻을 가진 復자에 衣자를 결합한 것으로 '옷을 겹쳐 입다'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複자는 단순히 '겹치다'나 '거듭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즈

아닐 부:

즈자는 '아니다'나 '부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즈자는 不(아닐 부)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不자는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식물을 그린 것으로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不자에 口자를 결합한 즈자는 '아니라고 말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쉽게 말하자면 不자는 '잘못되다'나 '못하다'라는 뜻이고 즈자는 '옳지 않다'와 같이 상황을 부정(否定)하는 의미로 쓰인다. 실제 쓰임에서는 이 둘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구분하자면 차이점은 존재한다.

즈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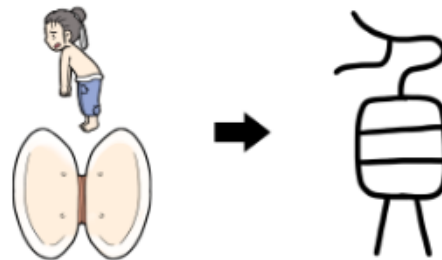
즈

소전

즈

해서

회의문자①



중

짐[荷]
부:

중자는 '짐 지다'나 '빚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중자는 貝(조개 패)자와 𠂔(병부 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𠂔자는 𠂔(병부 절)자가 변형된 것으로 허리를 굽히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貝자는 조개를 그린 것이지만 주로 '재물'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이렇게 사람과 재물이 함께 결합한 형태인 중자는 '빚'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재물 위에 허리가 굽은 사람을 그려 빚의 부담에 허덕인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중

소전

중

해서